2027학년도 대학원 학사 및 장학제도 개편 안내

Ⅰ 박사과정 수업연한 변경

1. 주요 변경 내용

가. 수업연한 단축: 기존 3년(6학기) → 변경 2년(4학기)

나. 적용 시점: 2027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(기존 재적생은 종전 3년제 유지)

다. 석박사통합과정: 현행 4년(8학기) 체제 유지

2. 추진 배경 및 당위성

가. 수도권 주요 대학원 운영 현황과의 격차 해소

- 수도권 주요 대학원(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, 성균관대, 한양대, 서강대, 중앙대 등) 대다수가 박사과정 수업연한을 2년(4학기)으로 운영하고 있음.
- 박사과정 진학 준비생들은 학위취득 소요 기간보다 학칙에 명시된 정규 수업연한을 대학원 선택의 우선 기준으로 고려함.

나. 실제 교육 운영 및 등록금 부담과의 불일치 해소

-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생의 대다수는 4학기 내에 수료에 필요한 모든 교과목을 이수 완료함.
- 5·6학기에는 학위취득준비장학금(등록금 100%)을 전액 지원하여 실질 등록금 부담은 4학기 체제와 동일하게 운영되어 왔음.
- 따라서 본 개정은 교육과정을 축소하거나 학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, 실제 운영과 학칙상 제도를 일치시켜 대학원의 대외 인식을 현실화하는 조치임.

3. 기대 효과

- 박사과정 조기 수료를 통한 학습자의 학업 및 사회적 커리어 경쟁력 신속 확보
- 수도권 주요 대학원 대비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신입생 유치 활성화
- 제도와 실제 운영의 일치에 따른 수험생의 혼선 및 불필요한 오해 원천 해소

Ⅱ 장학금 지급 기준 변경

1. 주요 변경 내용

가. 변 경 전 : 우수신입생 + 연구조교 + 교육조교1종 또는 교육조교 2종

나. 변 경 후 : 우수신입생 + 연구조교 + ~~교육조교1종 또는~~ 교육조교 2종

다. 효　　과 : 전일제 학생 장학금 중복 수혜 총액 상한 조정(200% → 150%로 축소)

라. 적용시점 :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(기존 재적생은 종전 규정 유지)

2. 개선 방향 및 재배분 효과

가. 전일제 초과 장학금 상한을 150%로 설정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

나. 상한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비전일제 학생을 위한 신규 장학금으로 전환·재배분

다. 장학금 수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비전일제 학생 유입 확대 및 전체 대학원 충원율 제고 도모

Ⅲ 협조 요청

1. 개편 사항을 숙지하여 수험생 상담 및 입시 지도 시 안내

2. 재적생 대상 규정 적용 구분 철저

- 2027학년도 이전 입학생: 기존 규정 적용 (박사 3년제, 중복 장학금 최대 200% 가능)
- 2027학년도 이후 입학생: 개정 규정 적용 (박사 2년제, 중복 장학금 최대 150% 상한)
- 연구실 내 선·후배 간 적용 규정 차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님들의 세심한 학사 지도 요망